

軍 성범죄 대부분 '상급자 성폭력'

국방부 특별대책TF 결과
 접수된 29건 중 20건 달해
 가해자 76% 영관장교 등
 피해자 94%가 중사·중위
 국방여성가족정책과를
 양성평등정책과로 변경키로

국방부는 8일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 총 29건의 성범죄 사건을 접수했으며 이중 20건이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이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TF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방부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에 발맞춰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지난2월12일부터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TF를 운영한 바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TF 활동 기간 중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 등 총 29건의 사건이 신고됐다.

이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으로 가해자의 76%가 영관장교와 원·상사 등이었으며, 피해자 94%는 중·하사와 중·소위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29건의 사건 중 TF 활동기간 신고된 사건이 1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2017년~2018년 1월 발생한 사건이 11건, 2016년 1건, 2015년 3건, 2014년 2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체 사건 중 24건이 조사 중에 있으며, 언어적 성희

롱으로 인한 2건은 사건처리가 종결됐다. 3건은 항고 중인 사건이다. TF 활동기간 확인된 준강간 2건은 현재 긴급구속 및 구속영장 청구 준비 중에 있다.

국방부는 "TF활동 기간 중 신고된 사건이 12건으로 TF가 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TF는 양성평등 의식개선,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사건처리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도 함께 도출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양성평등 의식 개선을 위해 장병 선발과정에서 성(性)인지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감사 이력관리 정보화시스템 개발하는 한편 국방부 내 국방여성가족정책과를 양성평등정책

과(예정)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다.

또 상고충전문상담관 통합지원 매뉴얼 작성 등을 위해 운영현황을 제정하고, 군내 다수인 병사를 포함한 모든 장병의 성폭력 방지와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성폭력 전담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성폭력 사건 징계처리기준을 세분화하며, 준강간·강제추행 등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양성평등 종합 발전계획으로 수립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민간위탁과 양성평등정책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푸드' 인증 마크 공모

통합지원센터, 21일까지 자체인증제 심벌마크 신청접수

전주푸드에서 자체인증을 받아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는 앞으로 심벌마크가 부착된다.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센터장 강성욱)는 오는 21일까지 약 2주간 전주푸드 자체인증제 심벌마크 선정을 위한 시민공모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주푸드 자체인증제 심벌마크 공모전은 올해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가 추진중인 1차 생산물 및 가공품의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안전한 먹거리 체계 이미지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참가자격은 전주시내 주소를 둔 초·중·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수채화와 크레파스와

등 표현기법이나 재료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심벌마크로 활용 가능한 형태의 디자인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참가방식은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jonjufood.org)에서 내려받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된다.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전주푸드 자체인증제는 전주푸드에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인증제도"라며 "전주푸드는 자체인증제를 통해 정기적으로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해 전주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자체인증제를 받은 농가들에 전주푸드 출하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건강관리 보탬 되길"

완산구, 노인일자리 어르신 1000여명 황사마스크 배부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이철수)는 8일 노인일자리 참여어르신 1,000여명에게 황사마스크 1만장을 배부했다. 이번 황사마스크 지급은 주3회 야외에서 3시간씩 계속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으로, 어르신들이 활동하기 좋은 봄이 되었지만 황사와 미세먼지 등 불청객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건강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 사업장 조성을 위해 배부되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모(75)씨는 "아침에 노인일자리 작업장에 나갈 때마다 하늘이 뿌연 날이 많지만 한번 쓰고 버리는 황사마스크 가격이 부담이 돼 그냥 다녔는데 마스크를 지원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완산구 나경옥 가족청소년과장은 "이번에 배부해 드리는 황사마스크 사용으로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복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어머날인 8일, 어느 병원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환자들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간호사가 어르신 환자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서신도서관, 11일부터 4주간 시민로스쿨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립 서신도서관은 '2018 전주독서대전' 봄을 조성하고 생활 속 시민들의 지속적인 문화 향유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4주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민로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돈이 되는 법률 상식'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주

최하고 전주준법지원센터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로스쿨 강의는 정아름 변호사가 강사로 초청돼 매주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 △빚도

상속이 된다 △개인 회생 및 파산 △사채로 살펴보는 성범죄의 4개의 주제 생생한 법률지식 전달과 사례 중심의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서신도서관 시민로스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onju.go.kr)를 참고하거나, 서신도서관 어린이실(063-281-6552)로 문의하면 된다. /기동취재반

전주시, 결혼성수기 대형예식장 불법주차차 단속

전주시가 결혼성수기인 5월을 맞아 대형예식장 주변 불법주차차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주말과 휴일 지역 내 대형예식장 주변의 도로교통 혼잡을 발생시키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와 완산·덕진구청은 5개반 12명의 특별 단속반을 편성,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예식 집중시간대 예식장 주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이동조치와 견인 등 강력 단속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전주시에서 4개 이상의 예식홀을 운영하는 대형 결혼식장 네 곳(N타워, 오벨리스, 아름다운컨벤션, 노블레스웨딩홀)의 경우 불법 예식 예약건수가 하루 평균 10건 이상 예식이 예약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예식이 집중된 토요일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 하객차

량들이 몰리면서 교통 혼잡이 발생해 주변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예식장 주변을 통과하는 일반 운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불법주차차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는 한편,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성수기 동안 예식장주변에 주차유도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차요도요원을 증원 배치하는 등 주차대책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예식이 집중되는 3월~5월에는 주말 예식장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는 만큼, 원활한 교통흐름이 유지돼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행정과 예식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병행해나갈 계획"이라며 "주말 혼잡시간대에는 예식장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예식장 이용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동취재반

"당신 외도했어?"... 아내 흥기 찌르고 자해한 50대 사망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흥기로 찌르고 자해한 50대가 사망했다.

8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A(58)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30분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의 아내인 B(49·여)씨의 옆구리 등을 흥기로 수차례 찌렀다.

그는 아내를 흥기로 찌른 직후 자신의 배를 2차례 찌러 자해했다.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과 119구조대는 A씨와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치료 중 숨을 거뒀고, B씨는 회복 중이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기동취재반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

